

2025년 봄호

제 118호 2025년 3월 3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조건호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춘교회 / TEL · 888-9111 FAX 888-9112

제29회 2025 새내기 신앙OT

His Will, He Will

일시: 2025.03.03 (월)
14:00 ~ 21:30
장소: 학생회관 2층 리운지 및
26동 B101호
주관: 서울대기독교연합 (서기연),
기독교수협의회(기교협),
기독교대학원생모임(기대모)

신청
@snu_christianunion
서울대기독교연합
서울대기독교연합(페이스북)

서울대 기독교 연합(서기연)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학내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체로 CCC, NCT, JOC, YWCA 등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단독에 기독교 연합이 결속하고 있으며 전국 학원복음화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기연은 신학생 및 여학생을 중심으로

교수칼럼



작년 2월 말에 31년 동안 봉
직했던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
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
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
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
족한 저를 우간다 쿠미대학교
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보다 더 경험이 많고 잘할 수 있는 분이 하면 좋겠다고 고사했는
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한 번 더 쓰겠다” 하시
며 선교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간다 쿠미대
학교로의 부르심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은퇴하면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
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쿠미대학교는 1999년 유형열 선교사(농대 78학번)에 의해 시
작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그동안
선교사들의 헌신과 개인 및 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통계적으로는 기독교 인구
가 대다수이지만, 이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전통과
문화로 남아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많이 필요한 곳입
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
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서,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 사회와 현장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받기를 원합니
다. 이를 통하여 저는 우리 학생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과 세
계를 섬기는 지도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3월 7일 “Spiritual Guidance”라는
이름으로 신입생들을 위한 신앙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셀 리
더들이 신입생들을 섬기며 이들이 각 셀에 속하도록 도와줍니
다. 신입생들은 매주 한 번씩 셀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
의 교제를 경험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배우며 셀 리더로서 성
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채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합니다. 현재 전교생의
10% 정도가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전교생이 큐티인으
로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도 진행됩니다. 이것은 쿠미대학교 영성 훈련의 핵심입니다. 소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훈련받은 학생은 셀 모임에서 다
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사십씩 부흥
사경회를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헌
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독
교 세계관 클래스를 오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상관없이 기독교적 외형이 일상화되어 있는 아
프리카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
순한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함으로써 참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작년 11월에
여학생 기숙사 기공식을 했는데 이 기숙사에는 한 유닛에 서로
다른 배경과 지역과 나라에서 온 15-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
께 살면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협력
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기반
시설(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
습니다.

저의 아내(김난주 선교사)는 대학의 공중보건과 복지 담당 책
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난주 선교사는 학생들을 먹이고
이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고치고,
열악한 주방 시설과 학생 식당을 새로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미대학교에는 우간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전 때문에 생긴 난민
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 180명 정도를 데려와 전
액 장학금을 주어 공부하게 하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합

쿠미대학교 교육 신고

니다. 저희는 그들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전쟁
으로 폐허가 된 자기 나라를 재건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
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
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종
들은 바로 쿠미대 학생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탈
진해서 보건소에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한 주에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
다. 우리 학생 중에 적어도 굶는 자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
다. 학교 밖에서는 가장 간단한 점심이 2,000-2,500 실링입니
다. 우리 돈으로 800-1,000원입니다. 보쇼 앤 빈, 옥수수 가루를
찐 것에 삶은 콩을 국물과 함께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탄수
화물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 양이 충분하면 든든합니다. 학교 바
깁에서는 2,000 실링으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양을 충분히 주고 1,000 실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
니다. 학생들도 그러면 좋겠다고 합니다. 물론 공짜로 주면 좋지
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찮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
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학
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캠퍼스를 바라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
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
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
과 말씀으로 양육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3월부터 학생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큐티인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디
로 가든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작년 11월 말에 말라리아에 걸리는 신고식을 치렀습
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어렵지 않게 지났는데 12월 말과 1월 중
순에 세 번 연속 걸리면서 몸에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쿠미 지역은 특별히 말라리아가 많은 곳입니
다. 작년 11월에 학교 보건소에서 치료한 말라리아 환자가 132
명입니다. 학교의 상주 인구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많은
학생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11월에는 거의 매주 선교사들
이 돌아가며 말라리아를 앓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선교사들
이 없었다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
에서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역의 소중함을 새
삼 느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선교사입니
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를 향하며 새로
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이의 오병이므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으신 것
처럼 저와 동역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을 먹이
고, 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리하여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
를 기도합니다.

쿠미대학교는 우간다의 동부에 있는 쿠미 지역의 은예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곳
입니다. 저는 이 시골의 작은 대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
학,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대학
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
요, 대사가 되는 그런 대학을 꿈꿉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종인(우간다 쿠미대학교 선교사, 총장)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연합 개강예배가 3월 3일 월요
일 6시 30분에 26동 B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 말씀은 김미정 목사(필그림 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His Will, He will’이며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다. 예배를 마친 후
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홍종인
- 2면 서기연 대표 이임사 ... 이다은
학생기자의 글 ... 조건호
사회기연 소개글 ... 박현규
- 3면 신앙오티 준비팀 ... 정명현/오현서/정명진
- 4, 5면 선교단체 소개
- 6면 비전트립 ... 김주성
- 7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 장효근
그들 독서 모임 ... 최하영
신앙과 학문 ... 장동원
- 8면 종강예배/대학춘교회 50주년 기념 예배/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그들 운영 개편

2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서기연대표 이임사



안녕하세요, 2024 서기연 대표 이다은입니다. 12월 온라인 대의원회의를 통해 대표로 선출되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25년도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2024년도가 까마득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서기연 사역들과 여러 사건들이 비디오처럼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처럼 순간의 장면들로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개강예배와 종강예배, 예배를 준비하며 만났던 섬김의 손길들, 서기연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셨던 많은 분들, 아가페 축제에 마음을 쏟고 준비과정에 함께한 대의원들과 TF 팀원들, 축제에서 힘든 내색 없이 즐겁게 부스를 이끌었던 단체들의 지체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의 씨앗들을 볼 수 있었던 홀리کم벳과 은혜 가득한 저녁 예배까지. 곁에 보내주신 이들 덕분에 바쁜 대표의 일을 무사히 끝냈다는 감사함과 받았던 사랑들을 기억할 때 기쁨이 납니다.

처음 대표로 자원하면서 서기연이 이어주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이어지는 것, 캠퍼스와 그리스도인을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캠퍼스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 개인과 단체가 이어지고 단체와 단체가 이어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의식하지 못하였는데, 아가페 축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모든 행사가 다 끝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시간표 아래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연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단체가 되기를, 이어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 축제가 끝났을 때 상기된 목소리로 각자 주신 은혜를 고백하던 분들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아가페 축제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아가페 축제의 예배를 통해 단체에 나아온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서기연을 둘러싼 캠퍼스의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가진 다른 모

하나님의 시간표 속 이어지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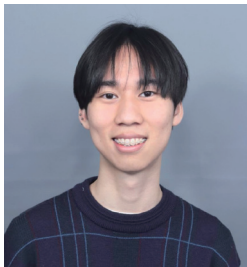
든 정체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리고 서기연 대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아직 다음 대표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24년도의 마지막을 보낼 때 제 심정은 미묘했습니다. 서기연에게 참으로 의미있고 감사한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 해였지만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호수아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고, 갈렙은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길고 지난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고 죄 많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40년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대의원회의의 2주 전 한 자매에게 서기연 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대표 자원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깔끔하게 대표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서기연은 사람의 지혜로 운영되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한 뜻대로 서기연을 이끌어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다은(영어영문학과 21)

학생기자의 글



안녕하십니까 이번 개강호부터 섬기게 된 진리는 나의 빛 신임 기자 조진호입니다. 저는 선임 기자인 문예는 선배님께 추천을 받아 기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신 선배님께서 선뜻 추천을 해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자 자리를 맡기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서기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한두 번 본 진나빛의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망설여졌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의 모든 선택이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학업, 진로, 친구, 수업 등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 찬 때였기에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선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제가 필요한 곳에 저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진나빛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 고민이야말로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의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방

아레테를 향해

학에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강영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탁월성, 아레테(arete)가 떠올랐습니다. 헬라어 아레테(ἀρετή)는 탁월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미덕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덕(virtue)이 바로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과 미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아레테는 미가서 6장 8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의, 인자를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할 것(Be humble with your God)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미덕의 아레테입니다.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의 아레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것”이라는 말처럼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레테의 철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쟁하고 패배하고 승리하는 세상의 철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철학을 살아가는 때 아레테를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신 아레테를 비로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테에 대해 이해하니 제가 어떤 기자가 되어야 하는

가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듣고 전하는’ 기자입니다. 학생 기자의 글을 쓸 때 어떤 내용을 신는 게 좋을까, 어떤 간증을 나눠야할까 고민하던 저의 모습은 결국 학생 기자로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모습이었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겸손과 탁월성을 갖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섬김으로써의 기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레테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서울대학교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듣고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의 하나님과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고 정말로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절을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으시는 분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대학초교회의 성도님, 서울대학교 학생 여러분, 진나빛을 읽어오신 분, 처음 보시는 분이 그려집니다.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을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신 진리의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레테는 무엇인가요?

조진호(산림과학부 24)

사회기연 소개글



사회과학대학 기독교인 연합(이하 사회기연)은 사회과학대학의 기독교인 학생들이 모여 같이 기도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개강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 18:30에 식교제를, 19:30에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보통 한 번 모임 때마다 5~6명 정도 모입니다. 동아리방은 16-1동(사회대 신양) 312-1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에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회대와 서울대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시험기간에 사람이 적

게 모이면 모인 사람끼리 기도제목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충동적으로 버들골에 가서 식교제와 기도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선배님께서 식교제를 버들골에서 하자고 하셔서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월이 넘어 저녁에는 어둡고 추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한 번은 버들골에 가서 식교제를 하면 좋겠지만, 버들골이 사회대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 주저하다가 한 번도 가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1학기 말에는 종강 파티를 열었습니다. 학기 말에는 기말고사로 바빠서 모이기가 어려운 지체가 많아 모임을 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일정이 모두 끝날 때쯤 다른 방을 빌려서 시험 기간의 어려움과 한 학기 동안의 은혜와 힘들었던 점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는 MT를 가기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모임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MT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서 소모임도 가졌습니다. C.S.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 주간 일정 분량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일정이 여의치 않아 모임 이후인 수요일 밤에 진행하다 보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많은 지체들이 모여 책에서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회기연 모임에서 다 나눌 수 없었던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새내기가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4학년 친구들이 잘 오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25학년 새내기들이 더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만큼 정기 모임 외에 삶을 나눌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중 정기 모임만으로는 선교단체나 조별 과제로 바쁜 지체를 품기 어렵기에 그 외의 모임을 통해 좀 더 활발하고 은혜 넘치는 사회기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현규(경제학부 23)

신앙오티 준비팀(예배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



안녕하세요! 25 신앙오티의 예배팀을 소개합니다. 저희 예배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팀입니다. 신앙오티의 대미를 장식할 예배를 위해 모인 예배팀은 예배에 참석하는 신우분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세워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나 예배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찬양입니다. 예배팀 구성원 모두가 오티 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어쩌면 찬양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예배 순서에서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예배 팀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석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오티 예배의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티 예배를 1학기 개강예배와 겸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오티 예배와 개강예배를 따로 드렸으나, 올해 신앙오티가 개강 전날인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기에 이번에는 오티 예배와 개강예배를 통합하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우선은 신앙오티에 참여할 25학번 새내기들이 학내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티에 오게 될 새내기들의 마음에는 설렘도 있겠지만 걱정도 뒤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새내기들에게 신앙오티가, 그리고 예배가 해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굳건한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보며 안정감을 얻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함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오티 예배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됨을 느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티 예배를 개강예배와 통합한 목적에는 새내기들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선배들도 자라날 새내기들을 더 많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내기들은 선배들을 보며 위안을 얻고, 선배들은 새내기들을 보며 희망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명현(외교학 석사 23)

신앙오티 준비팀(프로그램팀)



안녕하세요. 2025 신앙오티 프로그램팀을 맡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24학번 오현서입니다. 먼저 이번 신앙오티 준비를 함께 해주신 팀원들과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팀은 긴장되고도 설레는 새내기들과의 첫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추억으로 남도록 이번 오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세상에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 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시간에 새내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신앙오티의 첫 순서가 프로그램인 만큼, 이 시간을 통해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 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양한 활동과 교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앙오티 준비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새내기 때 모종의 이유로 신앙오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학에 오고 나서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셨고,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와 신앙오티 준비팀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내기 친구들이 신앙오티에 함께하여 이 캠퍼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대학교 1학년 시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새내기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이번 오티가 그 여정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현서(첨단융합학부 24)

신앙오티 준비팀(헬퍼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새내기가 서른 명이 오길 기도합니다. 모든 단과대, 다양한 학과에서 새내기가 오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설령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오직 주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헬퍼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헬퍼의 존재 의의, 또 본질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내기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논의합니다. 혼자서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개인 기도 자리에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논의를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OT입니다. 첫째는 새내기 참가자로, 다음 해는 준비팀으로, 그리고 올

해는 기획단으로 참여합니다. 첫째에는 그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수없는 기도가 있었겠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매번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역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다가 내가 소진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길 기도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한 말씀을 붙잡으며, 이제 2024년도 중앙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선물 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정명진(수의학과 23)



신앙오티 예배팀



신앙오티 헬퍼팀(1)



신앙오티 헬퍼팀(2)

4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선교단체 소개

네비게이토

대표: **정재원**(건축 19, 010-2339-9318)
인스타그램: @snu_navigators
모임 장소와 시간: 서울대 12동 401호,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한줄 소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Q1. 네비게이토는 어떤 곳인가요?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서울대 기독교연합(서기연)에 소속된 중앙 동아리로서 서울대 학생들을 올바른 신앙, 전공분야의 탁월한 지식, 성숙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Q2. 네비게이토에 들어가면 뭐가 좋나요?

건축19 선배: 동아리 방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니 전공 공부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었어요ㅎㅎ
산림21 선배: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같이 재미있게 하니까 운동을 즐기게 되었어요!!
약학22 선배: 아침에 학교에서 Quiet Time(QT)모임을 갖고 친구, 선배들과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도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23 선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다른 친구들도 존중하게 됐어요!

두루선교회

대표: **고성현** (정치외교 대학원) 010-2992-7737
인스타그램: @duru_campus
사이트: <http://www.durums.org>
문의처: 전임간사 **이충인**
한줄 소개: 저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가는 두루선교회입니다!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마4:23) 사역을 하신 것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 성취(마 28:18-20)에 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는 매달 채플과 주제별 특강을 통해 모이기에 힘쓰며, 매주 소그룹별로 온/오프라인 제자 훈련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인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제자 훈련뿐 아니라 교회, 학원(중/고등학교) 사역, 그리고 졸업 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신도 제자화에 힘쓰는 두루선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서학당(IBS)

단체 대표 성함: 대표 **김혜지**(재료공학부)010-7576-5619
간사: **민시원** 010-4154-6824
모임 장소와 시간: 서울대 35동 316호, 매주 월요일
한줄 소개: IBS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선택과 고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ies) 'IBS'입니다.
IBS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겪는 삶의 고민을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뭇을 찾고 진실된 관계를 배우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정기 모임으로 성서 강해, 분기별로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서학당 IBS!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길 소망하는 여러분을 성서학당 IBS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사랑선교회

대표: **문지명** (약대 20, 010-2188-7354)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21호, 매주 월요일 6시
한줄 소개: 한사랑선교회는 3L 사랑(Love), 빛(Light), 생명(Life)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

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양육 과정과 기도모임, 매주 캠퍼스 노방 찬양 예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친구가 되어 사랑의 섬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ABSK

대표: **서홍준**
SNS: 인스타 @snu.absk
모임 장소와 시간: 아시아연구소(101동) 417호, 매주 금요일 18시 30분
한줄 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ABSK(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성경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고려대, 경북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성경 공부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방학 중에는 히브리어 공부와 수양회 및 여러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6월 중 Harvard, MIT, Penn, Wellesley 등 미국 여러 대학교의 ABSK 동아리와 함께 한국에서 ABSK Forum을 개최하여 일반 학우들을 초대해 이 시대를 사는 대학생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주제로 토의하며 성경적인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여 답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에는 동유럽 등에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AM

대표: **남요셉**
SNS: 없음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23호 동아리방, 목요일 18:00~21:00
한줄 소개: CAM은 Christ’s Ambassador Mission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CAM 대학선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대학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제자 양육, 캠퍼스 정기예배, 전도와 섬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성경 공부와 교제, 워킹 처치, 지부 연합 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C

대표: **조준서**(010-9662-9364)
인스타그램: @snu_ccc
모임 장소와 시간: 26동 B101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줄 소개: 전도, 육성, 파송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 CCC

CCC는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고, 캠퍼스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ovements Everywhere(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라는 비전 아래 전도, 육성, 파송의 단계를 거쳐 복음의 능력을 갖춘 영적 리더로 훈련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채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선후배 간의 ‘순모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얼어붙은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훈련받고자 한다면 CCC에서 함께해보아요!

CMI

대표: **이장호** (의학 19), **장정완** 간사
SNS: 인스타그램@cmi_snuss
모임 장소와 시간: 낙성대 CMI 선교센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한줄 소개: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

CMI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학원복음화협의회 정회원으로 1961년부터 한국과 세계 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쓰며, 성경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서울대 CMI는 ‘서울대를 위한 CMI, 예수의 CMI’의 목표 아래, 1)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 체험, 2) 매주 캠퍼스 예배를 통한 캠퍼스에서의 신앙고백, 3) 학기별 수양회와 방학 중 캠프, 해외 비전트립을 통해 폭넓은 교제와 영적 성장, 4) 지부 모임을 통한 타 캠퍼스 외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의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참 예배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성경 말씀과 꾸준한 신앙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CMI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봐요^^

ECU

대표: **김정수**(컴공 23)
SNS: @ecu4u_official
모임 장소와 시간: 논현로 87길 23, 토요일 2시

한줄 소개: 나와 세상이 변화되는, 성경 66권 알아가고 알려주기

ECU의 핵심은 PBS 그리고 전도입니다. PBS(Personal Bible Study)는 성경 말씀을 바른 신학적 관점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게 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있는 모임을 통해 한 주간의 PBS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특히 방학마다 있는 5박6일 수련회에서는 한 주 동안 온전히 말씀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련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매일의 기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자서만 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나가서 제자 삼으라는 성경 속의 명령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씀에서 능동적으로 보화를 캐내고, 누리고, 나눠주는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 ECU.

ESF

대표: **우진영**(영어교육22, 010-9126-7283)
SNS: 인스타그램 @gwanak_esf
모임 장소와 시간: 사로수길 관악ESF 회관, 매주 목요일 19시
한줄 소개: 말씀의 사람들 ESF

ESF는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의 약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된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꿈꿉니다.
서울대가 소속된 ESF 관악지구는 숭실대, 총신대, 경인교대 등 여러 캠퍼스가 모인 연합 동아리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사로수길에 있는 관악ESF 회관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또 서울대ESF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성경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캠퍼스 모임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일대일 성경공부, 아침큐티, 방학 전국수양회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ESF 관악지구는 운동이나 음악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신앙에 더하여 일상을 즐거운 일들로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ESF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서울대 안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ESF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D

G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대표: **이윤지**(동물생명공학부 21, 010-4992-5434)
SNS: @snu_gldi
모임 장소와 시간: 자연대 26동 B102호,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한줄 소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 GLDI

서울대 GLDI(SNU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8-20)에 순종하여, ‘서울대 재학생(한국인 및 외국인)들을 글로벌 리더십으로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GLDI가 지향하는 글로벌 리더십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전문 영역(정치, 경제, 과학, 의료, 교육, 사회, 언어 문화, 예체능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1)이중언어 및 문화 리더십, (2)전문성 리더십, (3)영성 리더십, (4)협력적 리더십, (5)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1:1 양육, 캠퍼스 모임, 정기적인 기도회, 토요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보드게임, 피자파티, 설날과 추석에 웃놀이, 학업 지도와 영적 성장 및 생활 지원 등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C 국과 필리핀 등으로 미션트립도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GLDI와 함께해요♥

IVF

대표: **박인하**
SNS: 인스타그램 @snu_ivf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16호, 화요일 저녁 7시
한줄 소개: 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토로 활동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와 소그룹별 성경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소그룹 모임과 원투원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또, MT, 수련회 등 다양한 모임으로 따뜻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IVF는 자유롭게 솔직한 나눔을 환영하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IVF와 함께해요~

JOY

대표: **박준혁**(화학생물공학 20, 010-9265-0613), **신혜원**(인류 21, 010-5164-9744)
SNS: 인스타그램 @joymission_snu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22호(동아리방),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자연대 26동 B101호(정기 예배)
한 줄 소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spell JOY!

joy선교회(JOY)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초 교파적 복음주의 선교 단체입니다. 이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JFM(Jesus First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성경공부와 북스터디 등의 모임을 통해 신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및 교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T, 소풍 및 글래핑, 단풍구경, 김밥 만들기, 야구 직관, 롯데월드, 북스터디 등 학기 중 다양한 모임을 통해 연합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수양회, 동문과의 만남, 리더 훈련, 선교 사역등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후배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공동체를 누리는 joy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FC(학생신앙운동)

대표: **권영서**(원핵공 22, 010-4202-4296)
인스타그램 : @snu_sfc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19호,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매학기 변경)
한줄 소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SFC는 "Student For Chirst"의 약자로,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서울대 SFC에는 현재 '큰모임'과 '작은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진행되는 큰모임에서는 모든 운동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작은모임에서는 운동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책 모임, 악기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방학에는 전국 각지의 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대학생 대회,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성경통독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MT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SFC는 학생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운동원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SFC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D

UBF

대표: **표진주** (지구과학교육19, 010-2731-3750)
SNS: snubfriend
모임 장소와 시간: 자매 GBS (67동 204호, 화요일 저녁 5시), 형제 GBS (67동 204호, 목요일 저녁 5시), 주일 예배 (UBF교회, 일요일 오전 11시 20분)
한줄 소개: 성경 공부와 소감 쓰기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Your Best Friend, UBF입니다.

UBF는 대학생활동을 하며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성경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활용하는 동아리입니다.
성경공부: UBF는 말씀 중심의 귀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열린 질문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나누며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는 인격적인 1:1 성경공부, 여러 사람과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Group Bible Study가 있습니다.
소감 쓰기: UBF에서는 말씀에 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정리하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 외에도 캠퍼스에서 학기마다 진행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학기별MT, 여름 바이블 캠프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YWAM

대표: **오현서**
SNS: @snuywam
모임 장소와 시간: 26동 B102호, 매주 화요일 7시
한줄 소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안녕하세요! 기독교 동아리 예수전도단 / YWAM(Youth With A Mission)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7시에 캠퍼스모임으로 예배 후 교제하고, 목요일에는 예수전도단 서울 목요모임으로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일 아침 8시 10분에 묵상 모임을 통해 기도와 교제에 힘쓰는 동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To know God & To make him known)’라는 모토를 가지고 함께 먹고 노는 교제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족 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존귀한 여러분을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학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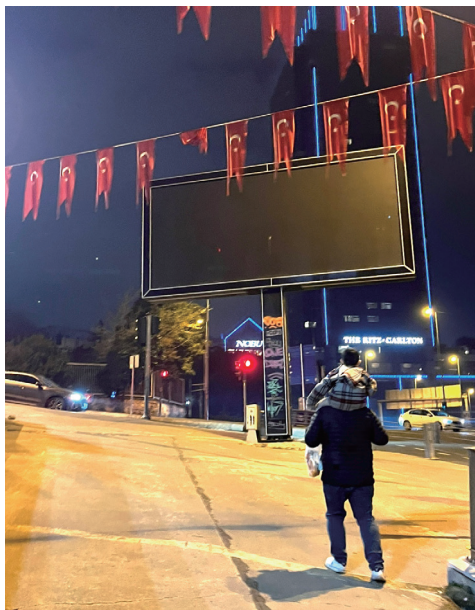
비전트립

튀르키예가 선교에 대해 묻다

선교(宣敎)란 무엇일까? 로잔언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쁨 없는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다. 즉 복음이 선교의 목적이자 동력인 셈이다. 그렇기에 선교에 나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되물게 된다. 튀르키예 비전트립은 복음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비전트립이란?

비전트립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의 마지막 커리큘럼이다. 4개월 간 함께 기독교전문인 강의를 듣고 신앙 훈련을 진행한 18명의 학생들과 두 분의 교수님, 한 분의 목사님이 한 팀이 되어 튀르키예로 향했다. 9일간의 일정 가운데 우리는 앙카라, 카파도키아, 안타키아(안디옥)와 이스탄불 4곳에서 선교사 특강, 난민 봉사, 캠퍼스 전도, 성지 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 팀이 마주한 질문들을 나누고자 한다.



1. 복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처음 우리가 맞닥뜨린 질문은 “과연 복음으로 충분할까?”였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9%가 무슬림으로 집계되는 국가다. 한때 선교의 교두보였던 이 땅에서 오늘날에는 크리스천들을 찾기 어렵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분은 이슬람권 선교의 고충을 얘기하신다. 견고한 진과 같은 이슬람 세계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역을 해도 개종자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시선으로 봤던 튀르키예는 ‘열매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선교사님들의 고된 삶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평생 동안 가시적인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해 대답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고,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으며,

특히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공통으로 말한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해요.”

“그 어떤 다른 삶과 맞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참 부러웠다. 복음이 가장 값진 것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이 참 향기롭고 빛나 보였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아직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삶에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해요. 마침내는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까지 원해요.”

복음만으로 충분할지에 관한 질문은 여정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고, 하나님께서는 여정의 끝에서 그 답을 준비하고 계셨다.

2. 튀르키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후에는 튀르키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과연 이 척박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안디옥에서 이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

성경에서 ‘안디옥’으로 알려진 안타키아는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거쳐 간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 팀은 사도행전 속 ‘안디옥 교회’로 추정되는 베드로 동굴 교회를 방문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이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극동의 대한민국까지 닿았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다. 복음에 빛난 우리가 복음을 잃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 팀은 이 척박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울었다. 매일 밤마다 튀르키예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닿곤 했다. 하나님의 눈물이 튀르키예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닿아 그들을 적시기를 꿈꾸게 된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로서, 2021년 기준 376만 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물질적으로나 비물질적으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에게 튀르키예에서 가장 소외된 난민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18)”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40)”

우리는 시리아 난민 가정집 세 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가정의 불화, 생계의 어려움, 불확실한 신변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방문했던 세 가정, 누르와 이브라힘, 하빔의 가정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난민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진정한 평안 속에 거하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우리 팀은 지진 피해 지역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진행했다. 꿈 바구니 만들기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며 마주했던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아름다운 미소가 잊히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도 참 아름다운 이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싶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아이들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라고 하며 눈빛과 제스처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돌려주었다. 주려고 할 때 더 받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역설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닐까? 교회 컨테이너 앞 공터에서 아이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순간들이 오랫동안 그리울 것 같다.

안디옥에서의 마지막 행선지는 지진 당시 무너졌던 교회 건물터였다. 2023년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아름다웠던 3층짜리 교회 건물은 모두 무너져 잔해로 남아 있었다.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다. 왜 이곳의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무너진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 싱그럽게 자란 오펜지 나무 한 그루와 해바라기 그림의 벽화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림으로써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비록 물리적 건물은 무너졌음에도, 해바라기와 같이 변함없이 주를 바라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 교회로 오는 길 차에서 들었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 무너진 건물 터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 팀은 무너진 교회 벽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

비전트립 동안 선행하게 느꼈다.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땅에서의 복음화를 열망하신다는 것을, 그림으로써 이 땅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말이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중보자가, 헌신된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린다. 그림으로써 하타이 지역을 세차게 흐르는 오론텔 강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온전히 덮기를 소망한다.

3. 나는 선교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필자를 강타했던 의문은 “나는 과연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다. 비전트립 일정 중 두 차례의 캠퍼스 전도가 있었다. 이 활동 중 일부 지체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강력히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낯선 이국의 대학에서 무슬림 및 무신론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출입이 제한당한 팀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친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지체도 있었다. 필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수록, 스스로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슬림 친구의 “I respect your faith(난 너의 믿음을 존중해).”라는 말도, 길거리에서 만난 무신론자의 “I don’t need a god made by human being(나는 인간이 만든 신은 필요 없어).”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필자를 낙담하게 했다. 두 차례의 지절감을 겪고 나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선교할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다.

캠퍼스 전도가 있었던 그날 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스탄불 탁심 광장 근처를 홀로 배회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내 꿈은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모습은 많이 부족하네요.”라고 기도하며 말이다. 그때 한적한 밤거리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넓은 어깨 위에 아들을 꼭마 태우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둘의 모습 속에는 따스함과 친밀함이 담겨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중 눈가가 젖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했다.

“힘들지? 혼자 힘으로는 선교를 못 해. 다만 너는 내 어깨 위에 저 어린 아이같이 업히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산책 후 공교롭게도 기도회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을 불렀다. 찬송의 가사가 와닿아 많이 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으며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선교적 삶을 짊어지겠다고 기도했다. “복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랑만으로, 아버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을 남기며, 사랑을 맺는,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내가 튀르키예에서 경험한 선교의 정의이다.

김주성(정치외교학부 22)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서울대

8년 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울대 합격을 확인했을 때 느낀 오묘한 감정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쁘는데,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정장을 사 입고 거리에 나온 느낌도 들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재도 그 오묘함은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서울대 나온 000”로 불리면 팬스레 자부심이 생기면서도, 이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친구들이 “5급 공채 시험에 붙었다더라”, “해외 어느 대학 박사를 땀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자랑스러우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지고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상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도 학벌이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함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류의 태도는 자칫 맥락에 따라 겸손이 아니라 기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우월감 표출에 잠식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스스로를 객관화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기독교인

장애인권 관련 입법·정책을 보좌하는 역할로 국회에서 1년 넘게 일하며 꽤 많은 크리스천

개인·단체를 만났습니다(이전에는 출석교회와 소속 선교단체 및 서기연 범위 밖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만날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느낀 전반적인 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 싶습니다(성급한 일반화로 여겨지신다면 죄송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와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179명이 사망한 참사 직후, 공항 바로 밖에 천막을 설치하고 크게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부한 물품의 총 값어치가 얼마인지 신나는 어조로 기자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열심에 악의가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시벨과 불타는 행동의지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르심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되려 힘없음에서 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헨리 나우웬) 바랍니다. 창조주의 죽기까지 무기력해지심에 우리의 삶과 꿈과 힘이 있습니다.

#연합

연초에 참석한 한 기도회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본회퍼 목사님이 약혼자에게 쓴 편지를 가사로 읊조린 곡입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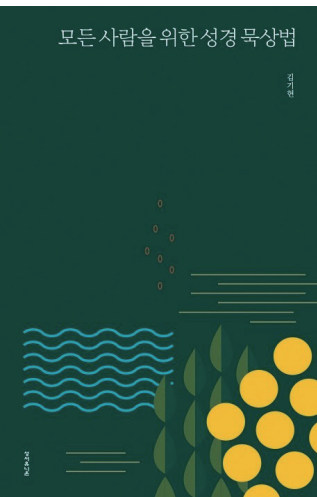
채팅방에서 기도회 참석 소감을 나누던 중, 타 캠퍼스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절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 직전에 저 가사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됨. 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냐” 현실적 한계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 우리의 연합이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 만큼, 본회퍼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2025-1학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호근(사회교육과 17)

그들 독서 모임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돌아보니 대학총교회 책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그들 선교센터에서 만나 다양한 주제의 기독교 서적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함께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좋은 양분이 되고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마무리한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김기현 저, 성서유니온)입니다. 성경 묵상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지만, 어째서인지 어렵게 느껴지거나, 즐거운 것보다는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다름 아닌 내가 부족한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려면, 묵상 역시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합니다: 소리 내어 읽기, 반복해서 읽기, 천천히 읽기, 듣기(낭독하기).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가만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새신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급자를 위해서는 요약하기, 상상하기, 여러 번역본과 주석을 참고하기, 모임을 통해 나누기 등의 방법이 추천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말씀을 잘 읽어서 “교회와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쁘다면 한 구절, 한 단어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적용 없이 묵상 없다”라는 외침도 등장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적용을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물들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으며, 본문과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묵상의 모든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그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말씀 묵상 모임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함께 봉독하며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라는 말씀처럼, 묵상 공동체는 개인과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보니, 이 책 모임 역시 여럿이 함께하기에 유익이 많으며 지속가능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천국의 씨앗을 심을 옥토를 품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합함보다 말씀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독자 여러분께도 동일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새로운 한 학기, 우리의 삶이 꼭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글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지만, 성경 묵상의 구체적인 실천 노하우를 얻고 싶으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책모임이 궁금하시거나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10-6309-8593

최하영(언어학과 석사수료)

신앙과 학문



지난 1월 16일,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기대모) 주최로 “신앙과 학문” 행사가 개최되었다. “신앙과 학문”은 서울대학교라는 학문의 장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인 지체들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곳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살게 된다. 진로의 고민, 비-기독교인과 함께 사는 법, 전도의 열정, 학문과 신앙의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금번 “신앙과 학문”은 행사

는 이런 고민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두 사람의 강연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연사는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의 민소연 자매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라는 주제의 간증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통해 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실천을 권면했다.

1. 매일의 순종이 중요하다/경건의 시간 갖기
2. 매일의 감사가 중요하다/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힘(살 5:18, 롬 8:28)
3. 진로 인도 등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영적 멘토 및 학문적 멘토와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기도의 시간 갖기 약속의 말씀 얻기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제원호 교수님께서 연사로 자리하시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과학과 신학의 통섭적인 관점에서 강연해주셨다. 신앙과 학문에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연 및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



하다며 물질 세계를 넘어선 통합적 창조론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안을 성경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각 세션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안배되어, 참석자들이 강연을 들으며 궁금함이 생겼거나 혹은 평소 궁금하던 내용을 질문할 수 있었다. 많은 참석자가 열정적으로 질문했는데, 그 뜨거움만큼 의문들도 녹아내렸기를 기대한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종강예배



식교제-공기연_침단융합학부



기도하는 모습



종강예배 설교



함께 찬양하는 모습(1)



함께 찬양하는 모습(2)



종강예배 합심기도

대학촌교회 50주년



선교센터 '그들' 운영 개편 안내

대학촌교회 선교센터 '그들'의 운영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월, 화, 목 17:00~21:00
수, 금 17:00~19:00
토, 일 09:00~12:00

전화번호: 070-8657-4972
인스타그램: @dhcgd_net
예약: 홈페이지 <https://dhcgd.net>
후원: 우리은행 1005-880-059111(기독교대학촌선교회)

미래 목회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대상 목회 및 신학에 관심이 있는 서울대 기독교인
분야 1. 지역 교회 차동혁 목사 고척교회
2. 기관 사역 이두희 목사 대한성서공회
3. 대안 목회 황인성 목사 공명교회/책보고가게
4. 학문/대학 손은실 교수 서울대학교
- 진행방식 목회 분야별 멘토 방문, 목회 여정 공유 소그룹으로 진행
기간 2025년 상반기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문의 임현우 목사 010-5402-4694

주최/주관 대학촌선교회(대학촌교회)